

2017년 4월 3일

투자전략 Daily

• Strategic Insight

4월 전략: Sell 인플레이, Buy 모멘텀

• 중화권 증시 동향

1분기 상해증시 3.8%, 홍콩H 9.4% 상승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NAVER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건설, 미디어, 통신서비스, 고려아연, 이노션, 이마트, POSCO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략 총괄 | 노근환 ☎ 3276-6226
투자 전략 | 박소연 ☎ 3276-6176
시황 분석 | 김대준 ☎ 3276-6247
계량 분석 | 안혁 ☎ 3276-6272
파생 / 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해외주식 | 백찬규 ☎ 3276-6280
중국시장 | 최설화 ☎ 3276-6274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글로벌기업 | 정희석 ☎ 3276-6277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 3276-6191
경제 분석 | 박정우 ☎ 3276-6229
채권 분석 | 오창섭 ☎ 3276-6174
해외채권 | 박승진 ☎ 3276-6560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 구 분 | | 3/27(월) | 3/28(화) | 3/29(수) | 3/30(목) | 3/31(금) | |
|------------------|--------|----------|----------|----------|----------|----------|--------|
| 유 가 증 권 | 종합주가지수 | 2,155.66 | 2,163.31 | 2,166.98 | 2,164.64 | 2,160.23 | |
| | 등락폭 | -13.29 | 7.65 | 3.67 | -2.34 | -4.41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301(2) | 525(1) | 400(1) | 360(1) | 509(0) |
| | | 하락(하한) | 504(0) | 262(0) | 394(0) | 422(0) | 284(0) |
| | ADR | 86.38 | 90.89 | 91.34 | 92.64 | 100.85 | |
| | 이격도 | 10 일 | 99.88 | 100.10 | 100.11 | 99.93 | 99.75 |
| | | 20 일 | 101.40 | 101.57 | 101.57 | 101.31 | 100.91 |
| | 투자심리 | 50 | 50 | 60 | 50 | 40 | |
| | 거래량 | (백만 주) | 396 | 394 | 627 | 644 | 432 |
| | 거래대금 | (십억 원) | 5,291 | 5,077 | 5,356 | 4,574 | 4,301 |
| 코 스 닥 | 코스닥지수 | 607.07 | 612.28 | 613.63 | 614.68 | 619.28 | |
| | 등락폭 | -1.11 | 5.21 | 1.35 | 1.05 | 4.6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385(1) | 753(2) | 549(3) | 522(3) | 688(5) |
| | | 하락(하한) | 731(0) | 363(0) | 551(1) | 578(1) | 400(0) |
| | ADR | 97.72 | 98.66 | 98.97 | 99.22 | 100.04 | |
| | 이격도 | 10 일 | 99.57 | 100.45 | 100.59 | 100.75 | 101.40 |
| | | 20 일 | 99.68 | 100.53 | 100.74 | 100.86 | 101.46 |
| | 투자심리 | 30 | 40 | 50 | 50 | 60 | |
| | 거래량 | (백만 주) | 814 | 806 | 788 | 800 | 769 |
| | 거래대금 | (십억 원) | 3,238 | 3,007 | 3,095 | 3,119 | 3,238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개 인 | 외국인 | 기관계 (금융투자)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연기금 등) | 기 타 | | |
|------------------|--------|----------|------------|----------|----------|--------|----------|---------|--------|--------|---------|
| 유 가 증 권 | 매수 | 1,926.9 | 1,569.4 | 728.0 | 252.9 | 71.8 | 110.3 | 74.1 | 13.8 | 205.0 | 76.4 |
| | 매도 | 2,041.2 | 1,544.5 | 697.5 | 220.1 | 71.4 | 127.2 | 78.2 | 13.2 | 187.4 | 17.5 |
| | 순매수 | -114.3 | 24.9 | 30.5 | 32.8 | 0.4 | -16.9 | -4.1 | 0.6 | 17.6 | 58.9 |
| | 3월 누계 | -1,002.8 | 3,525.5 | -3,664.1 | -2,507.3 | -412.3 | -1,038.0 | 148.9 | -84.3 | 228.9 | 1,141.3 |
| | 17년 누계 | -2,689.6 | 5,478.8 | -4,950.3 | -2,563.3 | -432.6 | -2,508.0 | 70.7 | -333.5 | 816.4 | 2,161.1 |
| 코 스 닥 | 매수 | 2,946.9 | 197.6 | 85.3 | 21.5 | 6.7 | 19.7 | 17.1 | 3.7 | 16.6 | 12.9 |
| | 매도 | 2,974.1 | 167.5 | 82.3 | 24.6 | 4.6 | 19.9 | 14.2 | 0.9 | 18.2 | 18.7 |
| | 순매수 | -27.2 | 30.0 | 3.1 | -3.0 | 2.2 | -0.2 | 2.9 | 2.8 | -1.6 | -5.9 |
| | 3월 누계 | 433.9 | 69.6 | -449.4 | 32.4 | -110.9 | -145.9 | -46.0 | 1.2 | -180.3 | -54.1 |
| | 17년 누계 | 1,659.1 | 57.1 | -1,561.2 | -334.2 | -318.1 | -454.4 | -123.9 | -35.6 | -295.1 | -155.0 |

4월 전략: Sell 인플레, Buy 모멘텀

| | |
|--------------------|---------|
| 2017년 Target KOSPI | 2,260pt |
| 12MF PER | 9.65배 |
| 12MF PBR | 1.00배 |
| Yield Gap | 8.7%P |

- ▶ 달라지는 주도주: 내수주와 소비재, 코스닥에 관심
- ▶ 투자전략: Sell 인플레, Buy 모멘텀
- ▶ 4월 아이디어 바스켓: 이익모멘텀

■ 달라지는 주도주: 내수주와 소비재, 코스닥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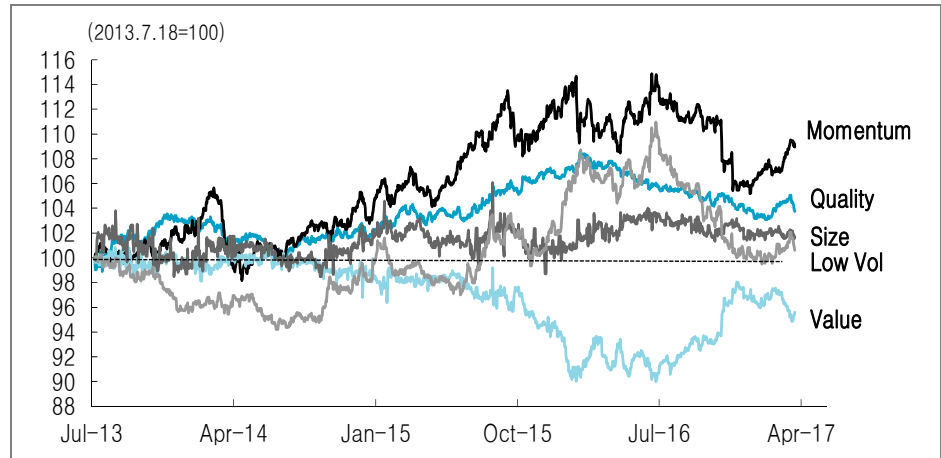
2016년은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던 시클리컬, 가치주(value stock)를 사는 것이 주효했다. 그러나 필자는 올해부터 이러한 전략의 유용성은 점차 감소한다고 본다. KOSPI가 2,150선을 회복하면서 2년 만에 장부가치 1배(forward PBR)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는 1) 한국시장의 극단적 디스카운트가 종료되었다는 관점에서는 매우 기쁜 일이나 2) 앞으로는 1배 이하의 싼 주식을 사는 전략이 점차 무의미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2년 이후 평균 PBR 대비 디스카운트 폭을 산출해보면 시클리컬과 은행주는 이미 deep discount 영역에서 벗어났고 자동차, 호텔/레저, 의류, 음식료, 소프트웨어 등 내수/소비재의 디스카운트 폭이 오히려 크다.

인플레이션을 팔고, 모멘텀을 사야할 시점이다. 중국 은행간 자금시장의 경색, 커머더티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 경기탄력 둔화를 암시한다. 반면 내수 경기는 김영란 법, 최순실 사태, THAAD 충격 등으로 지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가 안정, 5월 대선 이후 확대재정 편성 등도 우호적 요인이다. 홈쇼핑, 콘텐츠, 중소형 부품/소재주가 십시일반 포진한 코스닥도 관심 대상이다. 4월 KOSPI 예상 밴드는 2,080~2,200p이며 당사 유니버스 추정이익 기준 밸류에이션은 12MF PER 9.4~10.0배, 12MF PBR 0.92~0.98배다.

■ 4월 top picks: 삼성전자, 이마트, LF

이달부터 1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된다. 시기상 이익모멘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 1분기 실적은 투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간 컨센서스와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양호한 종목은 이익모멘텀강화를 기반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해 4월 아이디어 바스켓에는 이익모멘텀을 고려해 종목을 선정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이마트, GS, 현대해상, GS건설, 롯데정밀화학, LF다.

[그림 1] 미국 스마트베타 팩터별 상대강도 : Value 일변도에서 Momentum, Quality 등으로 지속 분산



자료: Bloomberg

<표> 4월 아이디어 바스켓 종목 9선

(단위: 십억원, 원, %, 배)

| 코드 | 종목명 | 시가총액 (3/30) | 수정주가 (3/30) | 영업이익 (1Q17) | 영업이익 증가율 (YoY) | 영업이익 상황 (YTD) | 12개월 선행 PER (3/30) | 12개월 후행 PBR (3/30) | 배당 수익률 (3/30) |
|---------|---------|-------------|-------------|-------------|----------------|---------------|--------------------|--------------------|---------------|
| A005930 | 삼성전자 | 295,286 | 2,099,000 | 9,332 | 39.8 | 20.5 | 9.9 | 1.3 | 1.0 |
| A034220 | LG디스플레이 | 10,770 | 30,100 | 858 | 2,072.9 | 59.7 | 5.5 | 0.9 | 1.7 |
| A032640 | LG유플러스 | 6,462 | 14,800 | 188 | 10.1 | 1.5 | 12.2 | 1.1 | 1.7 |
| A139480 | 이마트 | 5,798 | 208,000 | 180 | 15.4 | 3.6 | 13.3 | 0.6 | 0.7 |
| A078930 | GS | 5,371 | 57,800 | 427 | 31.7 | 5.1 | 6.1 | 0.8 | 2.6 |
| A001450 | 현대해상 | 3,049 | 34,100 | 149 | 15.9 | 15.4 | 7.5 | 0.8 | 2.2 |
| A006360 | GS건설 | 2,176 | 30,650 | 69 | 136.4 | 5.4 | 9.1 | 0.6 | 0.0 |
| A004000 | 롯데정밀화학 | 983 | 38,100 | 19 | 흑전 | 32.1 | 14.0 | 0.7 | 1.3 |
| A093050 | LF | 642 | 21,950 | 14 | 16.9 | 2.2 | 10.0 | 0.6 | 2.3 |

주: 배당수익률은 최근 결산기 DPS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오늘자 데일리지는 4월 3일자로 발간된 Strategic Insight ” Sell 인플레이, Buy 모멘텀”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분기 상해증시 3.8%, 홍콩H 9.4% 상승

- ▶ 상해종합지수는 0.4% 상승, 제조업 PMI지표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경기 개선 기대감 부각
- ▶ 홍콩H지수는 0.8% 하락, 실적이 부진한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4% 상승, 방위, 가전, 석탄, 은행, 자동차 등의 업종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0.4% 상승한 3,223p로 마감하며 닷새 만에 강세로 전환했다. 주간 단위로 1.4% 하락했고, 월간으로는 0.6% 하락했다. 거래대금은 2,140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소폭 상승 출발한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장중 등락을 보였다. 분기말 마지막 거래일과 청명절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농후했던 가운데 3월 말 계절적인 시기를 지나면 자금경색 또한 약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일부 매수세가 유입됐다. 3월부터 월말에 발표되는 관방 제조업 PMI 51.8로 직전치(51.6)와 예상치(51.7)를 모두 상회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했다. 직전일 급락했던 방위, 가전, 석탄, 은행, 자동차, 헬스케어, 미디어 등 업종들이 반등했다. 그러나 일대일로와 관련된 운송, 전자재, 건축, 기계 등 업종들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지수 상승폭을 억제했다. 차스닥 지수도 금일 0.7% 반등하며 메인보드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다. 중국 본토 증시는 4월 3~4일 청명절 연휴로 휴장하며, 5일에 개장할 예정이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8% 하락, 전력, 보험,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 약세

홍콩H지수는 0.8% 하락한 10,274p로 마감했다. 주간 단위로 2.0% 하락했고, 월간 단위로 0.2% 하락했다. 약세로 출발하자마자 오전에 낙폭을 확대했고 오후에 부진세를 이어갔다. 3월 중국 제조업 PMI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달러 강세 환경에서 실적 부진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들이 출회했다. 중국중철(390.HK)은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금일 6.2% 폭락했다. 모든 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전력, 보험, 전기차 등의 업종은 소폭 상승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 구분 | 3/31 (금) | 전일 대비(%) | 5거래일 전 대비(%) | 1개월 전 대비(%) | 연초 대비(%) |
|-----------------------|-----------|----------|--------------|-------------|----------|
| 상해종합 | 3,222.51 | 0.38 | -1.44 | -0.59 | 3.83 |
| 심천종합 | 1,986.47 | 0.35 | -2.94 | -0.74 | 0.88 |
| 차스닥 | 1,907.34 | 0.72 | -2.94 | -1.03 | -2.79 |
| 홍콩H | 10,273.67 | -0.79 | -1.95 | -0.24 | 9.35 |
| Shibor 7일물 금리(% , %p) | 2.85 | 1.03 | 2.37 | 4.47 | 12.07 |
| Shibor 1개월 금리(% , %p) | 4.35 | -0.78 | -2.42 | 6.62 | 31.59 |
| 중국국채 3년물(% , %p) | 3.01 | -0.17 | -1.27 | 4.54 | 4.29 |
| 위안/달러 고시환율 | 6.8993 | 0.15 | 0.21 | 0.35 | -0.54 |
| 역내 위안/달러 | 6.8916 | -0.03 | -0.11 | -0.36 | 0.77 |
| 역외 위안/달러 | 6.8812 | 0.04 | -0.12 | -0.37 | 1.38 |

주: 31일 오후 5시 31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 매수세로 코스닥 620P선에 바짝 다가섬

- 뉴욕증시는 주요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에 나스닥지수가 한달여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반전 후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며 2,160P로 마감.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 사흘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지수 상승을 주도, 620P선에 바짝 다가서며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한진해운 관련 제무리스크 해소 및 자회사 진에어 상장 기대감에 한진칼이 강세를 보였으며, 퇴행성관절염 신약 '인보사'의 국내 시장 공략 본격화 기대감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초강세를 보임.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소식에 POSCO가 강세를 보였으며, 포스코P&S 합병효과 및 실적 기대감에 포스코대우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또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디엔에이링크, 섀텍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에 수처리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미래컴퍼니, F&F가 급락했으며, 시만텍의 인증서 발급대행 권한이 정지됐다는 소식에 한국전자인증이 하락세를 보임

| 종목/테마 | 내용 |
|---|---|
| 한진칼(180640) ▶19,600 (+4.53%) |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해운 부실상각과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리스크 해소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아울러, 자회사 진에어가 지난해 중대형기를 추가 투입하며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1위 사업자인 제주항공을 바짝 추격하는 등 이익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IPO 관련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
| 코오롱생명과학(102940) ▶126,800 (+11.33%) | '인보사' 판매 기대감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보사'의 국내 마케팅·영업 전략적 파트너사로 먼디파마, 코오롱제약을 선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판매 기대감에 초강세 - '인보사'는 주사제를 통해 통증 및 기능, 관절 구조 개선의 효능 및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로 단 1회 투여로 2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짐 |
| 포스코대우(047050) ▶23,850 (+5.07%) | 실적 개선 및 포스코P&S와의 합병효과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가격 회복에 따른 미얀마가스전 영업이익 개선과 포스코P&S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아울러, AD-7광구의 3개 유망 구조 중 Thalín구조는 3월 평가 시추를 완료하고, Thalín-South구조는 3분기 중 탐사 시추가 예정돼 있어 향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수처리 관련주 | 차기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 정책과 관련해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력 대권 후보자들이 4대강 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이화공영(001840, +20.18%), 뉴로스(126870, +6.43%), 코웨이(021240, +3.55%), 시노펙스(025320, +3.08%), 한국종합기술(023350, +3.44%) 등 강세 |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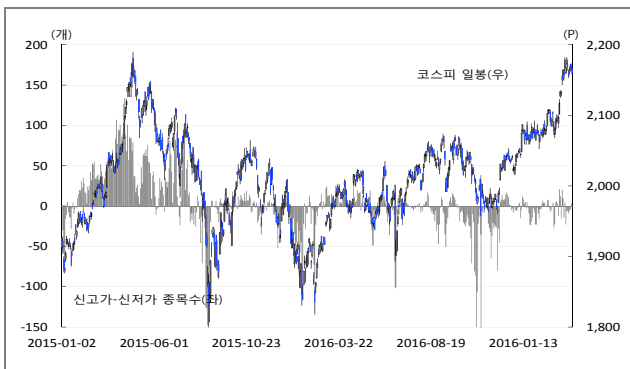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미국증시는 주 초반 트럼프케어 법안 철회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경제지표가 호조 속 경기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며 나스닥이 1개월여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보임. 국내증시는 1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기관 매도세로 코스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2,160P로 한주를 마감한 반면,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이며 나흘 연속 상승세 속 620P선에 바짝 다가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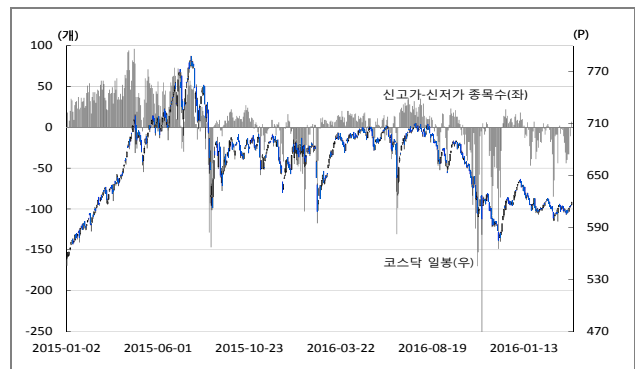
| 구분 | 섹터 | 업종 | 종목 | 주가(원) | 등락률 (%) | 섹터 | 업종 | 종목 | 주가(원) | 등락률 (%) |
|------|-----|--------|---------|---------|---------|-------|-------|---------|---------|---------|
| 유가증권 | IT | 전기전자 | 아남전자 | 5,500 | 57.6 | 에너지 | 화학 | S-Oil | 100,500 | 4.6 |
| | 소재 | 철강금속 | POSCO | 291,500 | 4.6 | 경기소비재 | 운수장비 | 태원물산 | 8,520 | 45.8 |
| | 산업재 | 기계 | 우진플라임 | 11,000 | 11.2 | 경기소비재 | 섬유의복 | F&F | 26,550 | 0.8 |
| | 산업재 | 기계 | 디와이파워 | 12,200 | 8.8 | 필수소비재 | 음식료 | 남양유업 | 850,000 | 8.8 |
| 코스닥 | IT | 일반전기전자 | 서울전자통신 | 1,940 | 43.8 | IT | 소프트웨어 | MDS테크 | 22,650 | 4.8 |
| | IT | 정보기기 | 아이리버 | 5,800 | 33.2 | IT | 반도체 | 다물멀티미디어 | 8,560 | 29.9 |
| | IT | 소프트웨어 | 갤럭시아컴즈 | 5,650 | 38.6 | IT | 기계,장비 | 미래컴퍼니 | 48,600 | 11.8 |
| | IT | 컴퓨터서비스 | 링네트 | 6,620 | 36.0 | 소재 | 비금속 | 포스코캠텍 | 15,350 | 3.7 |
| | IT | 소프트웨어 | 안랩 | 147,300 | 26.7 | 산업재 | 환경 | 코엔텍 | 3,290 | 7.0 |
| | IT | 반도체 | GST | 7,130 | 6.9 | 산업재 | 종합건설 | 서한 | 2,770 | 3.1 |
| | IT | 디지털컨텐츠 | 조이맥스 | 10,000 | 10.4 | 산업재 | 종합건설 | 이화공영 | 8,100 | 36.2 |
| | IT | 소프트웨어 | 한솔넥스지 | 7,400 | 11.7 | 건강관리 | 제약 | 경동제약 | 19,450 | 4.2 |
| | IT | IT부품 | 파워로직스 | 5,500 | 4.2 | 경기소비재 | 소매 | 큐렉소 | 8,940 | 28.1 |
| | IT | 전문기술 | 포스코 ICT | 7,090 | 5.4 | 경기소비재 | 방송서비스 | CJ오쇼핑 | 209,400 | 2.4 |
| | IT | 반도체 | 네패스 | 10,950 | 10.4 | 경기소비재 | 사업지원 | 모두투어 | 38,650 | 3.9 |
| | IT | 소프트웨어 | 민앤지 | 38,850 | 2.2 | 경기소비재 | 사업지원 | 참좋은레저 | 11,300 | 10.0 |

주) 상기 종목들은 03월 31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단위: 원, %)

| 종 목 (코드) | 현재가 (수익률) | 편입가 (편입일자) | 투자 포인트 |
|---------------------|-------------------|-------------------|---|
| 에스원 (012750) | 89,700 (+0.2) | 89,500 (03/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과 건물관리 결합 판매의 시너지 확대 등으로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 전망 - 삼성전자 평택공장 및 베트남 공장 건설로 상품판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 GS리테일 (007070) | 52,700 (+1.2) | 52,100 (03/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편의점 신규 출점수는 1,200개로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외형성장과 마진 개선폭이 두드러질 전망 - 부실점포 정리로 슈퍼마켓 사업부의 영업적자규모는 축소될 전망 - 1인 가구 증가와 '혼밥' 문화 확산에 따른 편의점사업의 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 |
| 엘앤케이바이오 (156100) | 8,250 (+1.1) | 8,160 (03/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및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척추임플란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성공적인 진입 이후 본격적인 성장 기대 - 제품 다각화 차원에서 개발한 무릎 인공관절의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영업망을 이용하여 판매가 가능해 기존사업과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 |
| 에버다임 (041440) | 10,250 (-5.5) | 10,850 (2/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 반등과 건설 수요 증가 등의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미국, 중동, 동남아 중심의 콘크리트 펌프카 해외 매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노후 재난 방지 시설에 대한 점검 속도가 빨라지며 소방 사다리 차량 교체 매출이 확대될 전망 |
| 에코프로 (086520) | 12,950 (+15.6) | 11,200 (1/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A 양극활 물질의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설비증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 중국 최대 금속재생기업이자 양극업체인 GEM사와 공동으로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규모의 경제, 인건비 절감, 원재료 조달 경쟁력 강화 등이 예상되며 영업력이 확대될 전망 |
| 유니트론텍 (142210) | 10,250 (+15.0) | 8,910 (12/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다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이 더욱 확대되어 외형 성장 전망 - 조인트벤처인 '유니트론텍차이나'를 통해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4분기 실적 개선 예상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NAVER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 종 목 (코드) | 현재가 (수익률) | 편입가 (편입일자) | 2017년 추정실적 | | | | |
|--------------------|--------------------|--------------------|---|-------|-------|--------|------|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EPS | PER |
| NAVER (035420) | 855,000 (+5.7) | 809,000 (03/03) | 4,633 | 1,372 | 973 | 32,386 | 26.4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스냅챗' 상장에 따라 사진 중심의 메신저인 '스노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예상 - 인공지능경망 기반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에 이어 웹브라우저 '웨일', 음성비서 '클로바' 등 적극적인 R&D 결과물이 공개되면서 기술플랫폼 업체로서의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 | | | | |
| SK텔레콤 (017670) | 252,000 (+8.2) | 233,000 (03/03) | 17,402 | 1,773 | 2,032 | 28,774 | 8.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6조원, AI,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차세대 ICT 사업에 5조원, 총 합계 1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 CEO교체에 함께 M&A위주의 경영전략 변화, SK플래닛 정상화, 연결실적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의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 | | |
| 씨엠에스에듀 (225330) | 26,650 (+0.8) | 20,450 (02/07) | 66 | 14 | 11 | 2,567 | 10.4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변별력이 낮아지고, 주요 대학의 이공계 입시 정원이 확대되어 수학 사교육비가 증가할 전망 - 작년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급학교와 학생 수가 확대될 전망. 4%를 상회하는 배당 수익률 예상 | | | | |
| 청담러닝 (096240) | 16,050 (-11.3) | 18,100 (12/29) | 163.1 | 27.8 | 15.1 | 2,194 | 7.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표 영어교육 전문기업으로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 및 가맹형태로 운영하며, 콘텐츠 사업과 스마트러닝 기반의 스마트클래스 사업을 운영 - 베트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중국 온라인에듀케이션과 계약한 솔루션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 될 전망 - 영재수학교육을 영위하는 자회사, CMS에듀케이션의 높은 실적 성장세에 주목 | | | | |
| CJ E&M (130960) | 85,000 (+19.9) | 70,900 (12/29) | 1,643 | 98 | 89 | 2,304 | 36.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퀄리티와 흥행성을 두루 갖춘 콘텐츠 제작·유통 및 광고 단가 상승 등으로 방송 부문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 호전이 지속될 전망 -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과 지분법적용대상 '넷마블게임즈' 상장 추진에 따른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 | | | | |
| 이마트 (139480) | 205,500 (+12.3) | 183,000 (12/29) | 14,600 | 501 | 296 | 10,619 | 19.4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식의 수요 증가가 편익점을 넘어 이마트로 확산되는 중. 피코크 등 PL상품 판매 확대로 상품마진이 상승하고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전망 - 상품차별화로 트레이더스가 이마트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협상력 개선에 따른 마진 상승과 매출증가의 선순환 예상 | | | |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NAVER,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건설: 1Q17 Preview: 양호한 실적과 투자사이클 재개

■ 1Q Preview: 예상을 하회할 업체는 없다

1분기 건설사의 영업이익은 예상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 원화강세로 환관련 손실이 예상되지만 전년동기 호남고속철 담합과징금을 150~600억원씩 반영한 기저효과로 순이익은 개선될 것이다. 순이익이 예상을 크게 상회할 업체는 대림산업이다. YNCC 지분법이익 급증(1Q16 250억원→1Q17 700억원 추정)과 KRCC 매각이익 350억원 영향이다. 대부분 지난 분기 비용을 충실히 반영했고 주택 매출이 늘고 있어 1분기 이익 훼손의 가능성은 낮다. 높아진 컨센서스 부담에도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의 양호한 실적을 예상하며 중소형사 중에서는 SK디앤디가 예상을 상회할 전망이다.

■ 미청구공사 분석: 대형사 모두 감소, book 건전성 강화

4분기 미청구공사를 분석한 결과 대형사 모두 감소하거나 최소 전분기와 유사했다. 대우건설이 6,760억원, 대림산업 2,720억원, GS건설은 1,380억원 감소하는 등 대형사 합산 미청구공사는 3분기 대비 1.1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합산 순차입금은 전년대비 3조원 감소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5조원, 현대건설은 8,410억원 감소하며 개선폭이 컸다. 현재 금감원은 현대건설을 모범사례로 회계기준을 작성하고 있다. 작년 거셌던 회계투명성 논란도 B/S 개선과 대우건설의 빅배스를 기점으로 일단락 되고 있다.

■ 상반기는 중동, 하반기는 아시아 발주 증가

아직 대선주자들의 주택정책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보유세 강화 등 주거복지 방향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주택시장에 변수가 많다. 반면 유가 회복과 산유국의 투자사이클 재개가 뚜렷해지고 있어 성장의 징후는 해외에서 발생할 것이다. 현재 해외수주 달성률은 계약기준 대림산업 19%, 현대건설 9% 등 예년대비 양호하며 4월부터 news flow가 활발할 전망이다. 최근 바레인 ‘밥코’ 정유와 오만 ‘두쿰’ 정유의 상업입찰(가격 제시)이 마감되며 쏠리스트 선정과 관련된 뉴스가 출회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없어,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또한 단일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개별 종목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보다, 결국은 투자사이클의 온기가 EPC업체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는 바레인 밥코 정유, 오만 두쿰 외에도 UAE ‘Bab integrated’ 오일(20억달러)의 입찰 등 중동 위주의 발주가 예상된다. 하반기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아시아의 정유 플랜트 발주가 강할 전망이다[5p]. 지난 2년간 이익 급증과 현금 축적의 시기를 겪은 정유/화학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 EPC를 단지 모넨텀 플레이가 아닌, 3~4년의 투자사이클을 감안해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 Top picks는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밸류에이션 정상화 진행 중

Top pick은 미국 ECC 인수와 이란시장의 의구심으로 활인률이 큰 대림산업, 수주잔고와 함께 시가총액이 증가할 삼성엔지니어링을 유지한다. 현대건설의 목표주가는 60,000원으로 11% 상향한다. 기준 BPS와 ROE를 2016~2017년 평균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며 목표 PBR이 기존 0.9배에서 1배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대형 건설사의 PBR은 1배를 향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미디어 · 광고: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났다

■ 광고업, 작년부터 이어진 불확실성과의 전쟁

작년부터 이어진 국내외 정치적 불안 요인이 경기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들의 광고비 집행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광고 산업은 기업들의 투자 및 마케팅 수요 심리와 연동돼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편이기 때문이다. 소비 심리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는 중소·중견기업의 광고 수요에 더 큰 위축을 불러일으켰다.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인 대상 사업의 비중이 높거나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관망하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어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위 광고업체들은 해외 사업 비중이 상당해 환율 변화에 일부 영향을 받는데 최근 환율 변동도 업황 개선에 비우호적이었다.

■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나, 업황 회복 기대

국내 경기는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나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투자 심리 개선, 대선 및 신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2분기를 기점으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매월 발표하는 광고경기 예측지수(KAI: Korea Advertising Index)에 따르면 4월 종합 지수는 128.6을 기록했으며 2분기 종합지수는 136.4로 나타났다. KAI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광고비 집행을 늘리겠다는 광고주가 많으면 100 이상을, 그 반대의 경우는 100 이하가 된다. 광고주 응답에 따른 예측 지수만큼 실제 집행 규모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업의 광고 집행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는 체감적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분기가 지날수록 광고 시장 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기대된다.

■ 2017년 광고 시장, 전년대비 2.6% 증가 예상

제일기획이 발표한 ‘대한민국 총 광고비 2016년 결산 및 2017년 전망’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10조 8,831억원으로 1.5% 성장에 그쳤다.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작년 초 목표한 예상 성장률 1.8%에는 미치지 못했다. 매체별로는 케이블/중편 광고 시장이 1.87조원을 돌파해 매체 점유율 17.1%로 1위를 기록했고, 모바일 광고 시장은 1.75조원(+36.3% YoY)에 달해 2위를 차지해 지상파 TV 광고 시장(1.66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국내 총광고비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1조 1,651억원으로 전망돼 국내 경제 성장률에 준하는 성장이 예상된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5월 진행될 대선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모바일 광고 시장은 전년대비 23.1% 성장이 예상돼 매체별 광고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모바일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모바일 광고 시장은 커질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3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통신서비스: 5G는 통신업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

■ 5G가 화두로 부각되며 통신업체 수익성에 미칠 영향에 관심 집중

5G가 정보통신산업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통신업체들이 당초 20년으로 예정된 5G 상용화 일정을 1년 앞당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표준 선점, 최초 서비스 경쟁 등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5G가 통신업체 수익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G 수익 모델, 주파수 확보 비용, 설비투자 비용, 망의 중립성 이슈 등 수익에 미칠 요인 점검에 분주하다. 우리는 5G가 성장 동력 확보, 점진적인 투자 집행으로 통신업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 5G와 4G를 동시에 활용하는 NSA 5G로 조기 상용화 추진

5G 표준은 국제표준화단체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17년 6월까지 5G 기본요건을 정하고 18년 6월에 1차 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보다 앞당겨진 일정이다. 통신업체 및 장비제조업체가 3GPP에 NSA(Non-standalone) 표준기술을 17년말까지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기 상용화 여지가 높아졌다. 17년 안에 NSA 표준이 마무리되면 5G 장비 및 단말 개발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어 5G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NSA는 통신업체가 5G망에 들어온 전파를 기존 4G망과 연결해 5G와 4G망을 동시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5G 전국망 구축 이전에 기존 4G망을 활용해서 5G를 조기에 상용화하는 기술로 완전한 5G SA(Standalone) 이전의 과도기적인 기술이다.

■ KT는 18년 세계 최초 시범 서비스, 19년 최초 상용화 계획

전세계 통신업체와 장비업체가 5G 기술표준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국내는 KT가 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19년에 최초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19년까지 서비스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며 LG유플러스는 20년에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 5G는 속도가 4G보다 66배 빨라 VR, AR, AI, IoT, 자율주행 등에 활용될 것

5G는 무엇인가? 왜 선점 경쟁이 치열한가? 5G는 초고속, 초저지연(Near-zero latency), 초연결 등의 속성을 지니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전송속도가 4G대비 270배(최근 3band LTE 대비 66배) 빠른 20Gbps 이상, 지연속도는 0.001초로 4G보다 30배 이상 빠른 기술이다. 전송속도가 빨라 수천억 개의 기기가 연결된 사물인터넷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초고용량 콘텐츠를 활용해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등 차세대 미디어가 활성화될 것이다.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으로 응용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25년 한국과 전세계 5G 시장은 각각 35조원, 800조원으로 전망된다.

■ 미래부는 18년에 3.5GHz, 28GHz 대역의 1,300MHz 할당 방침

미래부는 5G 서비스에 대비해 18년까지 3.5GHz 대역에서 300MHz 대역폭, 28GHz 대역에서 1,000MHz 대역폭 등 총 1,300MHz 대역폭을 할당할 계획이다. 필요 시 28GHz 주변 2,000MHz 대역폭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 5G 주파수 경매는 대규모 주파수 확보가 필요해 낮은 가격 산정 예상

향후 5G와 관련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는 주파수 확보 비용, 설비투자 비용 부담, 망 중립성 이슈 등이다. 통신업체는 11년에 50MHz 대역폭을 확보하는데 1조 7,015억원을 지급했다. 13년, 16년에는 90MHz, 100MHz을 확보하는데 각각 2조 4,897억원, 2조 1,106억원을 지급했다. 18년에 정부는 1,300MHz 대역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충분한 주파수 공급으로 사업자간 주파수 확보 경쟁은 없을 것이나 확보할 주파수 대역이 워낙 넓은 점은 부담 요인이다. 이전 경매 기준가보다 낮은 기준가 산정이 필요할 것이다.

■ 3.5GHz 5G는 기존 4G 망을 활용하면 투자비 부담이 작을 것

3.5GHz는 기존 4G 대역과 가까운 주파수 대역이어서 기존 장비, 기지국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5G와 4G를 같이 이용하는 NSA 방식은 설비투자의 효율성이 높아 투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 28GHz 5G 서비스는 투자 부담이 커서 주요 도시부터 시작할 전망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28GHz 5G는 기존 4G 장비 활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4G 주파수와 근접 대역이 아니며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고주파 대역이어서 매우 촘촘한 기지국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28GHz 5G 전국망 확보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통신 3사가 5G 경쟁심화로 조기에 28GHz 5G망 투자를 확대하면 설비투자 부담은 커질 것이다. 하지만 3.5GHz 5G와 4G를 공유하는 NSA로 전국망 서비스를 하고 28GHz 5G 서비스는 주요 도시 핫스팟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늘리면 설비투자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다.

■ 5G는 트래픽 폭증으로 망 중립성 이슈가 불거질 것

기존 3G, 4G 서비스에서 통신업체와 망이용 사업자(OTT)간 망 이용대가에 대한 충돌이 있었으나 망중립성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5G는 투자 규모가 크고 VR, AR, AI, 자율주행 등 트래픽 소요가 많은 서비스가 예상돼 망이용 사업자와 망 이용대가 산정이 이슈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FCC 위원장이 망중립성 완화를 언급한 것도 변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5G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망 이용대가를 받는 B2C 대신 사업자간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B2B 방식이 늘어날 것이다.

■ 5G는 긍정적인 요인이 부정적인 요인보다 우세할 것

4G는 11년 출시 이후 가입자당 매출액(ARPU)을 늘리는 등 이동통신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5G는 VR, AR, AI, 자율주행 등 새로운 서비스가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5G는 대규모 데이터 트래픽이 소요되는 차세대 서비스로 성장성을 높일 전망이다. 주파수 확보비용, 설비투자 부담을 감안한 점진적이며 효율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망 중립성 이슈도 수익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통신업체는 그동안 차세대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늘려왔다. 2G, 3G, 4G 사업 경험으로 5G 사업 위험도를 낮춰갈 것이다.

■ 통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 유지

통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사물인터넷(IoT)이 가입자 급증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IPTV가 흑자로 전환되며 이익 호전을 이끌 전망이다. 매출 호조와 비용 절감으로 17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 17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 호전이 배당 증가로 이어져 배당메리트가 높다. 사드 영향이 미미하며 조기대선으로 규제 리스크가 줄어 규제환경이 우호적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고려아연(010130)

중립(유지)
 증가(3/30): 434,500원

1Q17 Preview: 선방한 제련수수료, 여전한 우려

■ 2017년 제련수수료, 최선의 결과 도출

2017년 아연 제련수수료 협상이 1) payable(가격 지불율) 85% 유지, 2) price participation(아연 가격 변동에 따라 제련수수료 변동되는 조항) 제거, 3) 제련수수료 172달러 등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 제련수수료 협상이 시작되었을 당시 payable 상승을 주장한 광산이 한 발 양보한 결과다. 그러나 price participation이 제거되면서 2017년 제련수수료는 172달러로 고정되어 2016년 216달러 대비 20% 하락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존 전망인 200달러 대비 14% 낮게 결정되었다.

■ 1분기 연결 영업이익 2,130억원으로 시장 전망과 유사할 전망

이번에 결정된 제련수수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130억원으로 기존 추정치와 컨센서스와 유사할 전망이다. 2017년 제련수수료가 우리 추정보다 낮게 결정되었으나 프리미엄 전망을 상향한 결과 기존 추정치와 유사하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2017년 연결 영업이익은 8,380억원으로 기존 전망인 7,900억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 제련업에 대해 지워지지 않는 우려

2017년 제련수수료는 그나마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아연가격 대비 제련수수료가 6.1%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강한 miner market임을 입증한 셈이다. 우리는 정광 공급 감소보다 중국의 비철 산업 투자 사이클의 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의 비철 광산 고정자산 투자는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반면, 제련 고정자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중국의 아연과 연 정광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아연과 연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중국 제련사의 수입 정광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정광 확보 경쟁으로 이어져 제련수수료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제련 투자 확대로 향후 제련사의 생산능력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정광 의존도 상승이 향후에도 이어져 제련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상승여력 제한적, 투자의견 '중립' 유지

2017년 EPS는 9.8% 증가에 그치고, ROE는 11.3%로 전년도와 유사한데 PER은 11.8배, PBR는 1.4배에 달한다.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PS (원) | 증감률 (%) | EBITDA (십억원) | PER (x) | EV/EBITDA (x) | PBR (x) | ROE (%) | DY (%) |
|-------|--------------|---------------|--------------|------------|------------|-----------------|------------|------------------|------------|------------|-----------|
| 2014A | 4,939 | 683 | 501 | 28,362 | 11.9 | 839 | 14.2 | 8.1 | 1.6 | 11.4 | 1.6 |
| 2015A | 4,771 | 672 | 509 | 28,820 | 1.6 | 846 | 16.3 | 9.2 | 1.7 | 10.5 | 1.8 |
| 2016A | 5,848 | 765 | 592 | 33,519 | 16.3 | 983 | 14.2 | 7.9 | 1.6 | 11.2 | 1.8 |
| 2017F | 7,039 | 838 | 651 | 36,811 | 9.8 | 1,058 | 11.8 | 6.3 | 1.4 | 11.3 | 2.5 |
| 2018F | 7,605 | 985 | 758 | 42,875 | 16.5 | 1,210 | 10.1 | 5.2 | 1.2 | 12.1 | 2.8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3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이노션(214320)

매수(유지)

목표가: 84,000원(유지)

종가(3/30): 61,000원

1Q17 Preview: 업황이 아쉽다

■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할 전망

1분기 매출액은 2,660억원(-3.3% YoY), 매출총이익은 940억원(+5.8% YoY)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19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할 전망으로 시장 컨센서스(232억원) 대비 16.7% 하회할 전망이다. 1)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업황이 부진해 국내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이 예상보다 적었다. 2) 계열사의 불륜모델 출시 효과가 반영됐던 전년동기와 달리 금년에는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 3) 원/달러, 원/유로 등 환율 변동이 비우호적으로 작용했다(그림 1~4). 4) 슈퍼볼(2월) 광고 관련해 금년에는 실시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 시장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작년에는 결승전에 방영됐으나 금년에는 경기 종료 직후 슬롯에 선보였다. 광고 제작 및 매체비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이끌어내 역량을 입증했으나 슈퍼볼 광고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1분기 수익 기여도는 전년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5) 국내(본사)와 중국 지역은 실적이 부진해 영업이익 역성장이 예상된다(표3).

■ 캔버스 월드와이드의 이익 기여 높아질 것

미주 합작법인 캔버스 월드와이드는 2016년 영업 초해 연도로 일회성 비용 반영과 보수적인 실적 인식 등으로 분기 실적 변동성이 컸다(그림 5). 초기 비용 발생 등으로 16년 1분기 1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사업 안정화로 금년 1분기에 1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2017년에는 분기 실적 변동성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년 캔버스 월드와이드의 영업이익은 93억원으로 전년대비 69.2% 늘어 전사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성장 전망은 유효, 매수 의견 유지

이노션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84,000원(12MF PER 20배 적용)을 유지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비교적 해소 국면에 접어들어 점진적으로 국내 광고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업황 회복, 신차 출시, 신흥국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외형 확대를 지속할 전망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 부담이 완화되고, 신차 마케팅에 따른 계열사 물량 확대와 작년 영입한 비계열 광고주의 물량 기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수익 호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캔버스 월드와이드의 영업이익은 영업 안정화로 전년대비 69% 증가할 전망으로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해외 거점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JV 설립 등의 성장 전략이 다각도로 추진 중으로 성사시 비유기적 성장 모델이 더해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PS (원) | 증감률 (%) | EBITDA (십억원) | PER (x) | EV/EBITDA (x) | PBR (x) | ROE (%) | DY (%) |
|-------|--------------|---------------|--------------|------------|------------|-----------------|------------|------------------|------------|------------|-----------|
| 2015A | 988 | 93 | 70 | 370 | (18.8) | 99 | 189.2 | 8.4 | 23.1 | 13.7 | 1.3 |
| 2016A | 1,052 | 99 | 65 | 327 | (11.6) | 105 | 174.6 | 4.7 | 17.4 | 10.4 | 1.7 |
| 2017F | 1,126 | 110 | 74 | 3,709 | 1,035.4 | 118 | 16.4 | 5.3 | 1.7 | 10.9 | 1.8 |
| 2018F | 1,229 | 127 | 82 | 4,081 | 10.0 | 134 | 14.9 | 4.5 | 1.6 | 11.0 | 2.0 |
| 2019F | 1,344 | 139 | 87 | 4,354 | 6.7 | 147 | 14.0 | 3.9 | 1.5 | 10.9 | 2.1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3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이마트(139480)

| |
|--------------------|
| 매수(유지) |
| 목표가: 270,000원(유지) |
| 종가(3/30): 208,000원 |

1Q17 Preview: 계속되는 실적모멘텀

■ 1Q17 영업이익 1,903억원 (+22.0% YoY)

이마트의 2017년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903억원을 예상한다. 전년동기대비 22.0% 늘어나는 수준이다. 할인점 매출은 영업일수와 휴일 부족으로 부진하지만 피코크 등 상품마진 상승으로 영업이익 개선이 나타날 전망이다. 연결기준 매출은 3조 8,41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를 예상한다. 이마트 5.1%, 슈퍼마켓 2.1%, 기타 부문 9.8% 등이 반영된 수치다. 별도기준의 이마트 총매출은 전년동기대비 5.9% 늘어난 3조 5,600억원을 예상한다. 할인점 총매출증가율 1.9%, 트레이더스 32.2%, 이마트몰 26.3% 등이 반영되었다. 할인점의 기존점매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를 예상한다. 1~2월 누계 기존점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했고 3월은 전년동월대비 약 1.0%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레이더스의 3월 기존점매출은 전년동월대비 17.0% 증가로 보이며, 이마트몰 또한 25.0% 수준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 피코크, 매출과 수익성에 모두 기여

지나해 피코크 매출은 약 1,900억원으로 파악되며 올해 회사는 약 2,500~3,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증가율은 32.0%~45.0%로 계산된다. 1인가구 증가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HMR상품이며, 여타 HMR상품보다 상품마진도 더 높다. 고객traffic을 유치하기 위해 저마진을 감내하던 구조에서 매출과 수익성에 모두 기여하는 제품이 주력이 되고 있으며, 효과는 이마트의 여타 부문으로 전파되고 있다. 상품개발로 인해 트레이더스와 할인점뿐 아니라 슈퍼마켓, 이마트몰의 전망도 밝다. 기존점매출 부진에도 이마트의 영업이익 상승을 예상하는 주요 요인이며, 경쟁업체와 차별적인 실적을 예상한다.

■ 유통업종 최선호주, 목표주가 270,000원 유지

국내 소매업태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할인점이 주력인 기업의 자산가치를 모두 인정하기에 주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마트는 상품차별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할인점뿐 아니라 에브리데이, 이마트몰 등 모든 소매업태에서 상대우위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트레이더스는 30.0%를 넘어서는 고성장과 영업이익률 상승을 기록 중이다. 상품이 아닌 제품으로 고객traffic을 끌어들이는 경우, 유통업체의 영업이익률 한계점은 과거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인건비 상승(가능성) 이슈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무관하며 전환배치 등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 이마트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7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주가는 2017F PER 12.9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2017F PER 16.8배, 2017F PBR 1.0배에 해당한다.

|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PS (원) | 증감률 (%) | EBITDA (십억원) | PER (x) | EV/EBITDA (x) | PBR (x) | ROE (%) | DY (%) |
|-------|--------------|---------------|--------------|------------|------------|-----------------|------------|------------------|------------|------------|-----------|
| 2015A | 13,640 | 504 | 455 | 16,319 | 56.8 | 938 | 11.6 | 10.1 | 0.8 | 6.5 | 0.8 |
| 2016A | 14,778 | 547 | 376 | 13,502 | (17.3) | 1,003 | 13.6 | 9.1 | 0.7 | 5.1 | 0.8 |
| 2017F | 15,895 | 648 | 448 | 16,093 | 19.2 | 1,123 | 12.9 | 8.6 | 0.7 | 5.7 | 0.7 |
| 2018F | 17,135 | 770 | 545 | 19,545 | 21.5 | 1,267 | 10.6 | 7.4 | 0.7 | 6.5 | 0.7 |
| 2019F | 18,591 | 937 | 675 | 24,240 | 24.0 | 1,449 | 8.6 | 6.3 | 0.6 | 7.6 | 0.7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POSCO(005490)

매수(유지)

목표가: 365,000원(유지)

종가(3/30): 284,000원

강렬한 시작, 변신하는 2017년

■ What's new : 어닝 서프라이즈, 4대 중점 추진 전략 제시

1분기 연결 영업이익(잠정)이 1.2조원을 달성해 컨센서스를 37.4%나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 전망이다. 철강부분의 스프레드 상승은 예상되었으나 건설을 비롯한 주요 자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이 원동력이다. 한편 POSCO는 2019년까지 향후 3년 간 1) 고유기술 기반 철강사업 고도화, 2) 비철강사업 수익성 향상, 3) 차별화 역량 기반 미래성장 추진, 4) 그룹사업 Smartization 등 핵심 추진 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권오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비철강사업 수익성 향상'을 꼽았다.

■ Positives : 자회사 실적 개선, 약점의 해소

2015~2016년까지 2년간 자회사 실적이 부진했다. 특히 2016년에는 건설부분이 대규모적자를 보이며 철강부분의 이익 증가를 감쇄시켰다. 그리고 이는 ROE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1분기는 자회사의 실적 개선에 의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만큼 양상이 달라졌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약점으로 작용한 부분이 해소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예상을 뛰어넘는 자회사 실적 개선을 반영해 2017년 ROE 전망을 6.2%에서 6.7%로 0.5%p 상향한다.

■ Negatives : 너무 잘 나와도 걱정

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실적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1분기 잠정실적 발표는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일부에선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1분기가 분기 실적의 정점일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1) 철강부분의 개선이 이어지고, 2)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이어져 시장 추정치가 상향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결론 : 목표주가 365,000원 유지, re-rating 전망 지지, 자회사에도 관심 확대 필요

자회사 실적 전망을 변경해 2017년 ROE 전망이 6.2%에서 6.7%로 상향되었지만 목표 PBR 0.7배를 적용한 목표주가 365,000원을 유지한다. 우리는 철강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ROE가 상승하므로 주가의 re-rating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핵심 추진 과제 중에서도 '비철강사업 수익성 향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만큼 POSCO 자회사에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위: 십억원, %, %p)

| | 1Q17P | | | | 증감률 | | 2017F | |
|-------|--------|--------|-------|--------|--------|--------|--------|--------|
| | 추정 | 실적 | 차이 | 컨센서스 | QoQ | YoY | 당사 | 컨센서스 |
| 매출액 | 14,085 | 14,600 | 3.7% | 13,905 | (2.8%) | 17.2% | 59,647 | 57,126 |
| 영업이익 | 1,048 | 1,200 | 14.5% | 874 | 154.3% | 81.9% | 4,374 | 3,705 |
| 영업이익률 | 7.4% | 8.2% | 0.8% | 6.3% | 5.1% | 2.9% | 7.3% | 6.5% |
| 세전이익 | 898 | 1,081 | 20.4% | 721 | 흑전 | 98.4% | 3,955 | 2,925 |
| 순이익 | 664 | 800 | 20.4% | 559 | 381.0% | 122.4% | 2,926 | 2,245 |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김성근(skkim@truefriend.com) ☎ 02-3276-6252

◆주요 증시 지표

| 구 분 | | 3/27(월) | 3/28(화) | 3/29(수) | 3/30(목) | 3/31(금) | |
|------------------|--------|----------|----------|----------|----------|----------|--------|
| 유 가 증 권 | 종합주가지수 | 2,155.66 | 2,163.31 | 2,166.98 | 2,164.64 | 2,160.23 | |
| | 등락폭 | -13.29 | 7.65 | 3.67 | -2.34 | -4.41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301(2) | 525(1) | 400(1) | 360(1) | 509(0) |
| | | 하락(하한) | 504(0) | 262(0) | 394(0) | 422(0) | 284(0) |
| | ADR | 86.38 | 90.89 | 91.34 | 92.64 | 100.85 | |
| | 이격도 | 10 일 | 99.88 | 100.10 | 100.11 | 99.93 | 99.75 |
| | | 20 일 | 101.40 | 101.57 | 101.57 | 101.31 | 100.91 |
| | 투자심리 | 50 | 50 | 60 | 50 | 40 | |
| | 거래량 | (백만 주) | 396 | 394 | 627 | 644 | 432 |
| | 거래대금 | (십억 원) | 5,291 | 5,077 | 5,356 | 4,574 | 4,301 |
| 코 스 닥 | 코스닥지수 | 607.07 | 612.28 | 613.63 | 614.68 | 619.28 | |
| | 등락폭 | -1.11 | 5.21 | 1.35 | 1.05 | 4.6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385(1) | 753(2) | 549(3) | 522(3) | 688(5) |
| | | 하락(하한) | 731(0) | 363(0) | 551(1) | 578(1) | 400(0) |
| | ADR | 97.72 | 98.66 | 98.97 | 99.22 | 100.04 | |
| | 이격도 | 10 일 | 99.57 | 100.45 | 100.59 | 100.75 | 101.40 |
| | | 20 일 | 99.68 | 100.53 | 100.74 | 100.86 | 101.46 |
| | 투자심리 | 30 | 40 | 50 | 50 | 60 | |
| | 거래량 | (백만주) | 814 | 806 | 788 | 800 | 769 |
| | 거래대금 | (십억원) | 3,238 | 3,007 | 3,095 | 3,119 | 3,238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개 인 | 외국인 | 기관계 (금융투자)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연기금 등) | 기 타 | | |
|------------------|--------|----------|------------|----------|----------|--------|----------|---------|--------|--------|---------|
| 유 가 증 권 | 매수 | 1,926.9 | 1,569.4 | 728.0 | 252.9 | 71.8 | 110.3 | 74.1 | 13.8 | 205.0 | 76.4 |
| | 매도 | 2,041.2 | 1,544.5 | 697.5 | 220.1 | 71.4 | 127.2 | 78.2 | 13.2 | 187.4 | 17.5 |
| | 순매수 | -114.3 | 24.9 | 30.5 | 32.8 | 0.4 | -16.9 | -4.1 | 0.6 | 17.6 | 58.9 |
| | 3월 누계 | -1,002.8 | 3,525.5 | -3,664.1 | -2,507.3 | -412.3 | -1,038.0 | 148.9 | -84.3 | 228.9 | 1,141.3 |
| | 17년 누계 | -2,689.6 | 5,478.8 | -4,950.3 | -2,563.3 | -432.6 | -2,508.0 | 70.7 | -333.5 | 816.4 | 2,161.1 |
| 코 스 닥 | 매수 | 2,946.9 | 197.6 | 85.3 | 21.5 | 6.7 | 19.7 | 17.1 | 3.7 | 16.6 | 12.9 |
| | 매도 | 2,974.1 | 167.5 | 82.3 | 24.6 | 4.6 | 19.9 | 14.2 | 0.9 | 18.2 | 18.7 |
| | 순매수 | -27.2 | 30.0 | 3.1 | -3.0 | 2.2 | -0.2 | 2.9 | 2.8 | -1.6 | -5.9 |
| | 3월 누계 | 433.9 | 69.6 | -449.4 | 32.4 | -110.9 | -145.9 | -46.0 | 1.2 | -180.3 | -54.1 |
| | 17년 누계 | 1,659.1 | 57.1 | -1,561.2 | -334.2 | -318.1 | -454.4 | -123.9 | -35.6 | -295.1 | -155.0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투 | | 신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서비스업 | 6,026 | 전기가스 | -13,578 |
| 전기전자 | 5,868 | 운수장비 | -8,879 |
| 유통업 | 1,952 | 통신업 | -4,618 |
| KODEX 200 | 6,811 | 한국전력 | -13,356 |
| 삼성전자 | 4,647 | TIGER 200 | -12,511 |
| SK이노베이션 | 4,603 | 현대차 | -4,975 |
| 롯데케미칼 | 3,609 | 현대모비스 | -4,599 |
| KT&G | 2,399 | SK | -3,607 |

| 연 | | 기 | | 금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순 매 도 | |
| 서비스업 | 20,538 | 전기전자 | -7,985 | | |
| 철강금속 | 8,795 | 통신업 | -5,376 | | |
| 화학 | 6,085 | 운수장비 | -4,057 | | |
| POSCO | 9,003 | 삼성전자 | -5,802 | | |
| SK | 5,976 | LG유플러스 | -4,486 | | |
| 롯데케미칼 | 5,627 | 현대모비스 | -3,502 | | |
| 기아차 | 4,627 | 한국항공우주 | -3,075 | | |
| 대한항공 | 4,484 | 현대글로벌비스 | -2,922 | | |

(체결기준: 백만원)

| 은 | | 행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미분류 | 5,791 | 전기전자 | -4,543 |
| 건설업 | 1,579 | 화학 | -1,980 |
| 운수창고 | 1,358 | 섬유의복 | -151 |
| KODEX 레버리지 | 2,574 | SK하이닉스 | -3,263 |
| KBSTAR 200 | 1,859 | LG화학 | -2,121 |
| 팬오션 | 1,254 | GKL | -1,278 |
| GS건설 | 1,230 | 삼성전자 | -1,224 |
| 삼성바이오로직스 | 912 | 강원랜드 | -1,010 |

| 보 | | 험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서비스업 | 7,285 | 미분류 | -5,029 |
| 화학 | 3,853 | 전기전자 | -3,766 |
| 건설업 | 1,153 | 운수장비 | -3,208 |
| KBSTAR 200 | 8,233 | KINDEX 200 | -15,278 |
| ARIRANG 200 | 5,206 | KODEX 200 | -12,946 |
| KODEX 레버리지 | 4,986 | 코스닥150 SK하이닉스 | -2,198 |
| KT&G | 3,148 | 현대차 | -2,080 |
| SK이노베이션 | 2,738 | 한국전력 | -1,743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기 | | 관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서비스업 | 48,407 | 철강금속 | -18,414 |
| 화학 | 31,067 | 전기가스 | -16,245 |
| 미분류 | 26,548 | 운수장비 | -16,147 |
| 롯데케미칼 | 17,145 | 한국전력 | -17,559 |
| SK이노베이션 | 13,642 | 현대모비스 | -13,769 |
|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 12,105 | POSCO | -10,391 |
| 엔씨소프트 | 9,378 | 현대글로벌비스 | -7,802 |
| KT&G | 8,094 | 현대차 | -7,479 |
| 호텔신라 | 5,522 | 삼성물산 | -7,463 |
| 한진칼 | 4,953 | LG유플러스 | -7,194 |
| SK | 4,431 | 현대제철 | -5,151 |
| 대한항공 | 3,945 | 고려아연 | -4,252 |
| LG디스플레이 | 3,871 | LG전자 | -3,985 |

| 외 | | 국 | | 인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순 매 도 | |
| 철강금속 | 60,229 | 전기전자 | -86,573 | | |
| 운수장비 | 49,148 | 기타금융업 | -11,021 | | |
| 전기가스 | 9,488 | 미분류 | -9,030 | | |
| POSCO | 58,063 | 삼성전자 | -101,670 | | |
| 현대모비스 | 24,415 | 엔씨소프트 | -13,303 | | |
| SK하이닉스 | 12,675 | 삼성바이오로직스 | -12,849 | | |
| S-Oil | 11,722 | LG생활건강 | -11,813 | | |
| 한국전력 | 11,674 | 아모레퍼시픽 | -10,222 | | |
| 현대차 | 7,866 | LG화학 | -8,656 | | |
| 삼성전기 | 5,531 | NAVER | -5,137 | | |
| LG | 5,423 | KODEX 레버리지 | -5,075 | | |
| 대한항공 | 4,872 | 신한지주 | -4,695 | | |
| 한화케미칼 | 4,853 | 호텔신라 | -4,406 | |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투 신 | | | | 연 기 금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기계,장비 | 2,110 | 방송서비스 | -1,738 | 반도체 | 2,513 | 인터넷 | -1,272 |
| 사업지원 | 780 | 소프트웨어 | -635 | 제약 | 1,031 | 운송장비,부품 | -850 |
| 도매 | 623 | 반도체 | -496 | 방송서비스 | 667 | IT부품 | -725 |
| 에스에프에이 | 994 | CJ오쇼핑 | -2,017 | 이오테크닉스 | 1,333 | 카카오 | -1,248 |
| HB테크놀러지 | 659 | 골프존유원홀딩스 | -829 | CJ오쇼핑 | 667 | 컴투스 | -793 |
| 참좋은레저 | 646 | 동진씨미켄 | -467 | 위메이드 | 535 | 바이로메드 | -638 |
| 원익IPS | 497 | 바이로메드 | -368 | 태웅 | 423 | 파트론 | -523 |
| 서부T&D | 482 | 연우 | -330 | 가온미디어 | 399 | 매일유업 | -501 |

(체결기준: 백만원)

| 은 행 | | | | 보 험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제약 | 936 | 인터넷 | -144 | 제약 | 826 | 통신장비 | -757 |
| IT부품 | 517 | 금속 | -94 | 화학 | 597 | 비금속 | -288 |
| 기계,장비 | 498 | 일반전기전자 | -67 | 기계,장비 | 516 | 오락,문화 | -264 |
| 메디톡스 | 877 | 카카오 | -141 | 이녹스 | 523 | 유비쿼스 | -408 |
| 유아이엘 | 356 | 와이지-원 | -128 | 나무가 | 493 | 원익머트리얼즈 | -313 |
| 제넥신 | 239 | 인텔리안테크 | -67 | 코스메카코리아 | 379 | 유비쿼스홀딩스 | -304 |
| HB테크놀러지 | 224 | 파라다이스 | -38 | 휴젤 | 361 | 비츠로셀 | -289 |
| 이엔에프테크놀로지 | 162 | 동아엘텍 | -34 | 테스 | 360 | 포스코캠텍 | -288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기 관 | | | | 외 국 인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제약 | 6,369 | 운송장비,부품 | -3,073 | 디지털컨텐츠 | 4,237 | 소프트웨어 | -7,240 |
| 의료,정밀기기 | 2,540 | 인터넷 | -1,759 | 제약 | 4,219 | 오락,문화 | -1,926 |
| 기계,장비 | 1,926 | 소프트웨어 | -1,491 | 방송서비스 | 3,876 | 반도체 | -1,058 |
| 이오테크닉스 | 1,700 | 카카오 | -2,283 | 컴투스 | 3,691 | 안랩 | -8,351 |
| 디오 | 1,527 | 대창스틸 | -1,226 | 디오 | 3,349 | 셀트리온 | -3,416 |
| 메디톡스 | 1,526 | 네오오토 | -1,224 | 아이리버 | 2,208 | 파라다이스 | -1,710 |
| 파라다이스 | 1,342 | 골프존유원홀딩스 | -1,215 | 코오롱생명과학 | 1,863 | 인터플렉스 | -1,414 |
| 이녹스 | 1,249 | 코디엠 | -1,188 | CJ E&M | 1,719 | 파트론 | -1,200 |
| 테스 | 1,209 | 모두투어 | -1,125 | CJ오쇼핑 | 1,715 | 뉴트리바이오텍 | -980 |
| HB테크놀러지 | 1,168 | 컴투스 | -1,031 | 메디톡스 | 1,473 | 제룡산업 | -964 |
| 인트론바이오 | 993 | 에코프로 | -1,004 | 동진씨미켄 | 1,397 | 링네트 | -818 |
| 큐리언트 | 963 | 유비쿼스홀딩스 | -837 | 로엔 | 1,169 | 툽텍 | -810 |
| 셀트리온 | 885 | 실리콘웍스 | -797 | 서한 | 1,168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 -764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 KOSPI | | | | KOSDAQ | | | |
|--------|------|---------|------|---------|------|----------|------|
| 기 관 | | 외 국 인 | | 기 관 | | 외 국 인 | |
| 삼양홀딩스 | 19 일 | 환인제약 | 37 일 | 에이티젠 | 13 일 | 경동제약 | 44 일 |
| 삼양통상 | 16 일 | 미래에셋생명 | 25 일 | 동국산업 | 13 일 | 예림당 | 37 일 |
| JB금융지주 | 15 일 | 삼천리 | 21 일 | HB테크놀러지 | 11 일 | NICE평가정보 | 22 일 |
| SIMPAC | 15 일 | LG전자 | 19 일 | 서울반도체 | 11 일 | 아미코젠 | 21 일 |
| 부국증권 | 15 일 | 현대상사 | 19 일 | 대우스팩2호 | 10 일 | 리노공업 | 20 일 |
| 일성신약 | 14 일 | 현대차 | 18 일 | 인포바인 | 10 일 | 금화피에스시 | 18 일 |
| 우진 | 12 일 | 코오롱플라스틱 | 15 일 | 투비소프트 | 10 일 | 에스텍 | 17 일 |
| 동서 | 12 일 | 롯데손해보험 | 15 일 | 오션브릿지 | 9 일 | 원스 | 16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KOSDAQ | | | |
|-----------|--------|-----------|---------|---------|--------|---------|--------|
| 기 관 | | 외 국 인 | | 기 관 | | 외 국 인 | |
| 현대중공업 | 67,320 | SK하이닉스 | 202,738 | 에스에프에이 | 10,288 | 메디투스 | 25,585 |
| KODEX 200 | 45,167 | POSCO | 64,125 | SK머티리얼즈 | 9,040 | CJ E&M | 15,452 |
| SK이노베이션 | 33,073 | 현대차 | 62,110 | 웨이포트 | 8,436 | 휴젤 | 8,851 |
| KT&G | 28,893 | TIGER 200 | 41,582 | 이오테크닉스 | 7,542 | 컴투스 | 8,062 |
| SK | 27,158 | 한화케미칼 | 39,203 | 파라다이스 | 7,158 | 포스코 ICT | 5,477 |
| 효성 | 26,995 | KB금융 | 32,454 | 서울반도체 | 5,589 | 인바디 | 3,281 |
| LG화학 | 23,698 | LG | 32,121 | 테스 | 5,015 | 솔브레인 | 3,174 |
| 롯데케미칼 | 21,488 | S-Oil | 31,832 | 동아엘텍 | 4,473 | 평화정공 | 3,167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KOSDAQ | | | | |
|---------------|------------------|--------|--------|---------|--------|-------|--------|--|--|
| 종 목 | 기 관 | 외 국 인 | 합 계 | 종 목 | 기 관 | 외 국 인 | 합 계 | | |
| 서비스업 | 48,407 | 1,651 | 50,058 | 제약 | 6,369 | 4,219 | 10,588 | | |
| 유통업 | 9,235 | 8,196 | 17,431 | 의료,정밀기기 | 2,540 | 3,390 | 5,930 | | |
| 보험업 | 7,015 | 7,844 | 14,859 | 기계,장비 | 1,926 | 2,550 | 4,476 | | |
| S-Oil | 3,423 | 11,722 | 15,145 | 디오 | 1,527 | 3,349 | 4,876 | | |
| KODEX 레버리지 | 코스닥150 12,105 | 83 | 12,188 | 메디투스 | 1,526 | 1,473 | 2,999 | | |
| 대한항공 | 3,945 | 4,872 | 8,818 | 동진세미켐 | 295 | 1,397 | 1,692 | | |
| SK | 4,431 | 4,306 | 8,737 | 바텍 | 426 | 1,078 | 1,504 | | |
| 삼성전기 | 1,399 | 5,531 | 6,930 | 인트론바이오 | 993 | 402 | 1,395 | | |
| 코오롱 | 3,853 | 2,740 | 6,593 | 포스코 ICT | 868 | 417 | 1,285 | | |
| 한화케미칼 | 1,263 | 4,853 | 6,116 | HB테크놀러지 | 1,168 | 108 | 1,276 | | |
| GS | 2,839 | 3,127 | 5,966 | 제넥신 | 720 | 527 | 1,248 | | |
| LG | 402 | 5,423 | 5,825 | 휴젤 | 520 | 652 | 1,171 | | |
| 코웨이 | 2,622 | 2,993 | 5,614 | 에스엠코어 | 636 | 514 | 1,150 | | |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 KOSPI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문배철강 | 29 일 | KPX홀딩스 | 37 일 |
| 대동전자 | 23 일 | 동일산업 | 31 일 |
| 조광피혁 | 23 일 | KCTC | 22 일 |
| 한일철강 | 23 일 | 에스씨엔지니어링 | 14 일 |
| 에스코 | 22 일 | 티에이치엔 | 14 일 |
| 텔코웨어 | 20 일 | 대림산업 | 14 일 |
| 새론오토모티브 | 20 일 | ARIRANG 200선물레버리지 | 13 일 |
| 서연 | 20 일 | 동양생명 | 11 일 |

| KOSDAQ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아이디스 | 34 일 | 아이디스홀딩스 | 31 일 |
| 하이텍팜 | 34 일 | 디스플레이텍 | 27 일 |
| 한화MGI스팩 | 31 일 | 뉴트리바이오텍 | 18 일 |
| 경남스틸 | 20 일 | 태광 | 18 일 |
| 골프존유원홀딩스 | 19 일 | 텍스터 | 17 일 |
| 휴맥스홀딩스 | 19 일 | 사파이어테크놀로지 | 15 일 |
| 무림SP | 19 일 | 골프존 | 12 일 |
| C&S자산관리 | 18 일 | 파크시스템스 | 11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현대모비스 | -105,601 | 삼성전자 | -273,065 |
| 현대차 | -74,935 | 현대중공업 | -105,409 |
| 삼성전자 | -73,453 | KODEX 200 | -48,783 |
| KB금융 | -44,881 | 신한지주 | -45,920 |
| TIGER 200 | -42,532 | 삼성바이오로직스 | -34,581 |
| 현대제철 | -41,785 | KT&G | -22,504 |
| SK하이닉스 | -40,869 | 한국타이어 | -22,406 |
| 한국전력 | -40,490 | KODEX 레버리지 | -21,056 |

| KOSDAQ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카카오 | -17,442 | 셀트리온 | -55,389 |
| CJ E&M | -16,050 | 안랩 | -10,463 |
| 파트론 | -5,425 | 파라다이스 | -6,072 |
| 코리아에프티 | -5,275 | SK머티리얼즈 | -5,949 |
| 서진시스템 | -4,630 | 뉴트리바이오텍 | -4,966 |
| 컴투스 | -4,319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 -4,155 |
| 코디엠 | -4,036 | 바이로메드 | -4,048 |
| 네오오토 | -3,959 | 서진시스템 | -3,816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종 | 목 | 기 | 관 외 국 인 합 계 |
| 전기전자 | | -726 | -86,573 -87,299 |
| 통신업 | | -9,303 | -3,578 -12,881 |
| 기타금융업 | | -1,262 | -11,021 -12,283 |
| 삼성전자 | | -1,745 | -101,670 -103,415 |
| 삼성바이오로직스 | | -539 | -12,849 -13,388 |
| KODEX 레버리지 | | -3,298 | -5,075 -8,373 |
| 하나금융지주 | | -2,388 | -3,089 -5,477 |
| CJ제일제당 | | -1,480 | -3,981 -5,461 |
| SK텔레콤 | | -1,278 | -3,785 -5,063 |
| 아모레G | | -2,725 | -1,402 -4,127 |
| 미래에셋대우 | | -1,888 | -1,524 -3,412 |
| 기업은행 | | -784 | -2,328 -3,112 |
| 하이트진로 | | -1,593 | -747 -2,340 |

| KOSDAQ | | | |
|---------|---|--------|---------------|
| 종 | 목 | 기 | 관 외 국 인 합 계 |
| 소프트웨어 | | -1,491 | -7,240 -8,731 |
| IT부품 | | -1,013 | -198 -1,211 |
| 금속 | | -1,336 | 385 -951 |
| 파트론 | | -703 | -1,200 -1,903 |
| 코디엠 | | -1,188 | -263 -1,451 |
| 뉴트리바이오텍 | | -344 | -980 -1,324 |
| 네오오토 | | -1,224 | -14 -1,238 |
| 툽텍 | | -321 | -810 -1,131 |
| 동아엘텍 | | -672 | -382 -1,054 |
| 바이로메드 | | -768 | -255 -1,023 |
| 아모텍 | | -791 | -148 -938 |
| 유비쿼스홀딩스 | | -837 | -45 -882 |
| 주성엔지니어링 | | -2 | -723 -725 |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 KOSPI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삼성전자 | 25 | 52,618 |
| 삼성중공업 | 1,380 | 15,350 |
| 아모레퍼시픽 | 44 | 12,646 |
| LG전자 | 174 | 11,752 |
| 현대차 | 69 | 10,967 |
| POSCO | 33 | 9,301 |
| 기아차 | 235 | 8,590 |
| LG디스플레이 | 241 | 7,269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셀트리온 | 92 | 8,281 |
| 카카오 | 44 | 3,662 |
| 메디투스 | 4 | 1,733 |
| 안랩 | 9 | 1,262 |
| 코디엠 | 754 | 1,231 |
| 바이로메드 | 12 | 1,158 |
| 디오 | 33 | 947 |
| 웹젠 | 43 | 947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 KOSPI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삼성전자 | 3,325 | 6,978,293 |
| SK하이닉스 | 53,432 | 2,719,679 |
| NAVER | 1,972 | 1,697,592 |
| 아모레퍼시픽 | 4,551 | 1,287,857 |
| 하나금융지주 | 32,775 | 1,229,056 |
| 현대차 | 7,707 | 1,221,531 |
| LG생활건강 | 1,371 | 1,128,457 |
| KB금융 | 20,453 | 1,009,357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셀트리온 | 30,859 | 2,786,608 |
| 카카오 | 9,247 | 765,625 |
| 로엔 | 3,321 | 296,873 |
| 바이로메드 | 2,495 | 232,050 |
| 메디투스 | 447 | 204,840 |
| 코미팜 | 5,285 | 200,567 |
| 파라다이스 | 12,666 | 174,164 |
| 안랩 | 845 | 116,134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 KOSPI | | | |
|---------|-------|--------|---------|
| 순 증 | | 순 감 | |
| 건설업 | 3,652 | 기계 | -14,698 |
| 전기전자 | 3,295 | 운수창고 | -2,407 |
| 유통업 | 3,278 | 철강금속 | -1,949 |
| 우리은행 | 3,313 | 두산중공업 | -12,105 |
| 팬오션 | 3,060 | 대한항공 | -5,264 |
| KB금융 | 2,880 | 대경기계 | -3,191 |
| SK하이닉스 | 2,777 | 한온시스템 | -2,030 |
| 삼성중공업 | 2,255 | POSCO | -1,928 |
| 두산인프라코어 | 2,115 | 삼성증권 | -1,608 |
| SK네트웍스 | 1,858 | 롯데손해보험 | -1,226 |
| 대우건설 | 1,334 | 삼성전자 | -1,008 |
| 호텔신라 | 1,097 | 한화케미칼 | -833 |
| 후성 | 1,089 | LG유플러스 | -773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 순 증 | | 순 감 | |
| 제약 | 2,749 | 도매 | -1,349 |
| 반도체 | 1,352 | 오락,문화 | -604 |
| 비금속 | 1,231 | 의료,정밀기기 | -439 |
| 셀트리온 | 2,595 | 아이이 | -1,229 |
| 홈캐스트 | 1,342 | 에스아이리소스 | -571 |
| 웹젠 | 1,311 | 루트로닉 | -412 |
| 유진기업 | 1,209 | 제일제강 | -332 |
| 뉴트리바이오텍 | 501 | 위지트 | -306 |
| KD건설 | 463 | 에스코넥 | -287 |
| 에스마크 | 452 | 삼화네트웍스 | -285 |
| 이엘케이 | 447 | 모두투어 | -265 |
| 디에스티로봇 | 439 | 넥슨지티 | -233 |
| 이화전기 | 388 | 파라다이스 | -210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 구 분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5일간 누계 | 3/27(월) | 3/28(화) | 3/29(수) | 3/30(목) | 3/31(금) |
|-------|----------|----------|--------|---------|---------|---------|---------|---------|
| 외국인 | 5,478.8 | 3,525.5 | 111.3 | 36.4 | 21.6 | -61.8 | 90.2 | 24.9 |
| 기관계 | -4,950.3 | -3,664.1 | -351.7 | -104.7 | -81.8 | -26.4 | -169.2 | 30.5 |
| (투신) | -2,508.0 | -1,038.0 | -198.3 | -66.3 | -88.5 | -25.5 | -1.1 | -16.9 |
| (연기금) | 839.4 | 233.4 | 37.2 | -32.5 | -45.7 | 94.3 | 0.1 | 21.0 |
| (은행) | -333.5 | -84.3 | -32.4 | -23.8 | -13.6 | 0.3 | 4.1 | 0.6 |
| (보험) | -432.6 | -412.3 | -162.2 | -50.0 | -28.5 | -75.4 | -8.7 | 0.4 |
| 개인 | -2,689.6 | -1,002.8 | 6.6 | 16.7 | 1.9 | 36.8 | 65.6 | -114.3 |
| 기타 | 2,161.1 | 1,141.3 | 233.8 | 51.6 | 58.4 | 51.5 | 13.5 | 58.9 |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3/24(금) | 3/27(월) | 3/28(화) | 3/29(수) | 3/30(목) |
|--------------|----------|----------|-----------|----------|----------|----------|----------|----------|
| KOSPI | 1,961.3 | 2,026.5 | 2,160.2 | 2,169.0 | 2,155.7 | 2,163.3 | 2,167.0 | 2,164.6 |
| 고객예탁금 | 22,695.6 | 22,754.4 | 22,565.4 | 22,576.3 | 22,494.6 | 22,294.5 | 22,102.7 | 22,565.4 |
| (증감액) | 6,853.1 | 58.8 | -22,754.4 | -597.9 | -81.7 | -200.1 | -191.8 | 462.7 |
| (회전율) | 28.8 | 24.8 | 34.1 | 36.3 | 37.9 | 36.3 | 38.2 | 34.1 |
| 실질예탁금증감 | 7,687.7 | -3,211.2 | -19,288.9 | -324.0 | -145.9 | -344.3 | -127.0 | 425.5 |
| 신용잔고(KOSPI) | 3,035.6 | 2,929.1 | 3,264.2 | 3,250.4 | 3,262.9 | 3,249.6 | 3,249.3 | 3,264.2 |
| 신용잔고(KOSDAQ) | 3,491.2 | 3,848.7 | 3,954.8 | 3,951.8 | 3,952.5 | 3,943.3 | 3,958.7 | 3,954.8 |
| 미수금 | 151.0 | 125.6 | 118.8 | 127.1 | 126.1 | 119.4 | 117.7 | 118.8 |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설정 잔액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3/23(목) | 3/24(금) | 3/27(월) | 3/28(화) | 3/29(수) |
|----------|---------|--------|--------|---------|---------|---------|---------|---------|
| 전체주식형 | 69,524 | -4,693 | -2,037 | -52 | -142 | -110 | -13 | -107 |
| (ex.ETF) | | -3,434 | -1,357 | -88 | -21 | -52 | -75 | -11 |
| 국내주식형 | 52,239 | -4,183 | -1,865 | -42 | -149 | -99 | -13 | -122 |
| (ex.ETF) | | -2,930 | -1,185 | -78 | -28 | -41 | -76 | -26 |
| 해외주식형 | 17,285 | -511 | -172 | -10 | 7 | -11 | 1 | 15 |
| (ex.ETF) | | -504 | -172 | -10 | 7 | -11 | 1 | 15 |
| 주식혼합형 | 7,881 | -194 | -36 | -7 | 36 | -7 | 4 | -4 |
| 채권혼합형 | 24,202 | -2,324 | -607 | -80 | -42 | -31 | -10 | -27 |
| 채권형 | 104,382 | 149 | 462 | -140 | -11 | -155 | -2 | 27 |
| MMF | 125,090 | 20,375 | 1,455 | -230 | -30 | 1,114 | -608 | -1,189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국가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5일간 누계 | 3/27(월) | 3/28(화) | 3/29(수) | 3/30(목) | 3/31(금) |
|-------|--------|-------|--------|---------|---------|---------|---------|---------|
| 한국 | 4,718 | 3,076 | 100 | 33 | 19 | -56 | 81 | 22 |
| 대만 | 5,431 | 2,370 | 881 | 314 | 403 | 92 | 73 | - |
| 인도 | 6,092 | 4,535 | 1,234 | - | - | 105 | - | - |
| 인도네시아 | 643 | 778 | 112 | 30 | - | 70 | 12 | - |
| 태국 | 193 | 122 | 412 | 49 | 49 | 5 | 310 | - |
| 남아공 | -2,245 | -836 | -487 | -55 | -90 | -174 | -168 | - |
| 필리핀 | -349 | -251 | -133 | -10 | 1 | -120 | -4 | -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 구분 | 2016년말 | 3/27(월) | 3/28(화) | 3/29(수) | 3/30(목) | 3/31(금) |
|-----------------------|----------|----------|----------|----------|----------|----------|
| 회사채 (AA-) | 2.14 | 2.17 | 2.18 | 2.17 | 2.18 | 2.18 |
| 회사채 (BBB-) | 8.27 | 8.38 | 8.38 | 8.38 | 8.39 | 8.39 |
| 국고채 (3년) | 1.64 | 1.66 | 1.65 | 1.65 | 1.66 | 1.66 |
| 국고채 (5년) | 1.80 | 1.84 | 1.84 | 1.84 | 1.86 | 1.84 |
| 국고채 (10년) | 2.08 | 2.15 | 2.16 | 2.15 | 2.18 | 2.17 |
| 미 국채 (10년) | 2.56 | 2.37 | 2.41 | 2.37 | 2.41 | - |
| 일 국채 (10년) | 0.06 | 0.05 | 0.06 | 0.05 | 0.07 | - |
| 원/달러 | 1,210.50 | 1,112.80 | 1,113.00 | 1,114.20 | 1,117.20 | 1,118.40 |
| 원/100엔 | 1,030.04 | 1,008.24 | 1,009.34 | 1,004.24 | 1,004.04 | 1,000.08 |
| 엔/달러 | 117.52 | 110.37 | 110.27 | 110.95 | 111.27 | 111.83 |
| 달러/유로 | 1.05 | 1.08 | 1.08 | 1.07 | 1.07 | 1.06 |
| DDR3 1Gb (1333MHz) | 1.15 | 1.20 | 1.21 | 1.21 | 1.21 | - |
| DDR3 2Gb (1333MHz) | 1.50 | 1.82 | 1.82 | 1.82 | 1.82 | - |
| NAND Flash 16Gb (MLC) | 1.87 | 2.18 | 2.18 | 2.18 | 2.18 | - |
| CRB 지수 | 193.97 | 183.09 | 184.07 | 185.20 | 185.52 | - |
| LME 지수 | 2,663.2 | 2,816.2 | 2,865.5 | 2,886.8 | 2,905.2 | - |
| BDI | 961 | 1,282 | 1,333 | 1,338 | 1,324 | - |
| 유가 (WTI, 달러/배럴) | 53.90 | 47.73 | 48.37 | 49.51 | 50.35 | - |
| 금 (달러/온스) | 1,131.35 | 1,257.55 | 1,257.25 | 1,251.10 | 1,248.80 | - |

: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 월 | 화 | 수 | 목 | 금 |
|---|--|--|--|---|
| 27 | 28 | 29 | 30 | 31 |
| 유럽> 2월 M3 통화공급 YoY (4.7%, 4.9%, 4.9%) | 韓> 4Q GDP YoY (2.4%, 2.3%, 2.3%) 美>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 (125.6, 114.0, 114.8) 2월 도매 재고 MoM (0.4%, 0.2%, -0.2%) | 美> 옐런의장 연설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0.8%, n/a, -2.7%) 유럽> 영국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 美> 4분기 GDP QoQ (2.1%, 2.0%, 1.9%)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58, 247, 261) 유럽>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 (-5.0, -5.0, -5.0) | 美> 2월 개인소득 (n/a, 0.4%, 0.4%) 2월 개인소비지수 (n/a, 0.2%, 0.2%) 3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98.0, 97.6) 日> 2월 광공업생산 MoM (2.0%, 1.1%, -0.4%) 2월 CPI YoY (0.3%, 0.3%, 0.4%) |
| 3 | 4 | 5 | 6 | 7 |
| 韓> 3월 수출 YoY(1일) (n/a, 12.0%, 20.2%) 3월 닷케이 PMI 제조업 (n/a, n/a, 49.2) 美> 3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3.4) 3월 ISM 제조업지수 (n/a, 56.8, 57.7) 中> 3월 차이신 PMI 제조업 (n/a, 51.3, 51.7) 日> 3월 닷케이 PMI 제조업 (n/a, n/a, 52.6) 1Q 단칸 대형 전체 산업 Capex (n/a, n/a, 5.5%) 유럽> 3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6.2) | 韓> 3월 CPI YoY (n/a, n/a, 1.9%) 美> 2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7.0, -48.5) 2월 제조업수주 (n/a, 0.9%, 1.2%) 2월 내구재 주문 (n/a, n/a, 1.7%) | 美> FOMC회의록 공개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0.8%) 3월 ADP취업자 변동(천명) (n/a, 183, 298) |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258) | 美> 3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173, 235) 3월 실업률 (n/a, 4.7%, 4.7%) 2월 도매재고 MoM (n/a, n/a, -0.2%) |
| 10 | 11 | 12 | 13 | 14 |
| 日> 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n/a, 65.5) | 유럽> 4월 ZEW 서베이예상 (n/a, n/a, 25.6) | 韓> 3월 실업률 (n/a, n/a, 4.0%)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中> 3월 CPI YoY (n/a, 1.0%, 0.8%) 3월 PPI YoY (n/a, 7.5%, 7.8%) 日> 3월 PPI YoY (n/a, n/a, 1.0%) | 韓> 옵션만기일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中> 3월 수출 YoY (n/a, n/a, -1.3%) | 美> 미국 휴장(Good Friday)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n/a, n/a) 3월 CPI MoM (n/a, -0.1%, 0.1%) 3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n/a, 0.1%) 日> 2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0%) 유럽> 유럽 휴장(Good Frida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